

외교 참사·文 서면조사·예산... 여야, 이슈마다 격돌

법사위 국감... 與 “文 강제 조사” vs 野 “무도하다” 맞붙 피켓 시위 외통위, 박진 퇴장에 30분 정회...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비 1조원’ 질책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국감 첫날부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각종 논란 및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예산 편성 논란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파열음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붙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국민의힘 정정식 의원),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 국감은 박진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놓고,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만 벌이다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오전 10시36분께 정회한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10분을 넘겨서야 비로소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회의가 속개되자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회의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는 재차 파행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재욱 위원장(국민의힘)에게 윤 대통령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빚은 동영상 틀게 해 달라 요청하면서 여야 간 격

한 대립으로 국감은 40분여만 만에 다시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영상 상영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영상을 틀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든”으로 들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며 답을 피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북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인 방조 논란”으로 규정하며 “진실을 밝혀내려면 국가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영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명백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찬홍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넘긴다는 것은 겁박과 공갈”이라고 맞받아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정부, 정치탄압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광주시당 “윤 정부, 민생 외면·정치탄압 몰두”

외교 참사·정치 탄압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이날 시당 회의실에서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서민경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치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무능과 정권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문재인 죽이기’와 ‘이재명 죽이기’는 국민의 저항을 가져줄 것”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당은 이날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시당 구성을 위한 주요 인선(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장 선거 운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청년·대학생 등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의결한 4개의 상설위원회에는 ▲교육연수위원장 임성화(현 서구의회 의원) ▲문화위원장 노소영(현 남구의회 의원) ▲홍보소통위원장 오정재(현 서구갑 청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양옥균(전 북구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시당 대변인에는 안평환·채은지 광주시의원이 임명됐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SNS에 ‘도발 규탄’ 글... 대화·소통 재개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도발은 스스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은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

아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임을 잊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정부에도 요청된다”며 “맞대결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도리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도발로 위기가 깊어지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더욱 선행해졌다”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영구적 평화안착을 위한 길을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시민 참여 ‘공약실천계획’ 수립

시민배심원 50명 위촉...공약 이행·평가 등 전 과정 참여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내☆일이 빛나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에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약 평가 시민배심원단 5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광주시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이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수립·이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조정

이 필요한 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다.

광주시는 공평하고 투명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배심원단 구성을 의뢰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고려해 시민배심원 5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강기정 시장의 위촉장 수여식에 이

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교육, 본인 구성, 안건 선정 등이 진행됐다.

시민배심원단은 오는 19일과 11월 2일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공약에 민심의 뜻을 입혀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선 8기 127개 공약과제와 17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배심원단 운영과 더불어 10월 중에 온라인 양방향 시민소통 플랫폼 ‘시민광장 광주 온(ON)’을 통해 시민에게 공약실천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